



삼성전자, iF 디자인 어워드' 서 금상 2건 등 총 11건 수상



삼성전자는 지난 9월1일 독일 뮌헨의 피나코텍 박물관에서 열린 'iF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어워드(Communication Design Award) 2007' 시상식에서 금상 2건 등 총 11건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유럽을 대표하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은 지난 2005년 신설됐다.

삼성전자의 금상 수상작은 휴대폰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크루아(Croix)'와 포터블 기기 패키지 '디지털 스토리'다. 금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루아' <사진>는 터치 스크린 기반 삼성 휴대폰의 인터페이스 명칭으로, 손가락 터치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과 '드래그&드롭'과 같은 직관적이고 일관된 사용성이 특징이다.

또 다른 금상 수상작인 '디지털 스토리'는 MP3, 캠코더, UMPC, DMB TV, 포터블 프로젝터 5개 포터블 기기의 패키지 명칭이다.

이외에도 UI 프로모션 동영상 'ix', 유비쿼터스 홈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Uz' 등 9건이 일반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회사 측은 "국내 최초로 금상을 복수 수상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또한 세계 초일류 수준임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SK C&C, 산자부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 사업 수주

SK C&C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G4B) 3차년도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8월29일 밝혔다.

G4B 구축사업은 창업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민원 행정 서비스는 물론 산업정보와 부가서비스 등을 한 곳에 담아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추진과제로 지난 2004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SK C&C는 이번 사업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50개 사이트의 산업정보 콘텐츠를 구축하고 KOTRA 등 12개의 정부 지원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와의 연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면허신청(제조업) 등 정부기관의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358종의 기업민원 프로세스 상세안내지도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다양한 기업민원행정지도에 대한 관심 항목 별 접근은 물론 개인화 페이지를 통한 산업정보 습득 기능 등을 제공하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기관 콘텐츠 수집 결과에 대한 성공여부와 실패 원인 분석 및 정보 재수집 등을 수행하는 연계 콘텐츠 현황 모니터링 기능도 구현한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산업정보 콘텐츠가 확대 제공될 뿐 아니라 각종 기업 민원은 물론 산업정보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 원스톱 이용이 가능해져 G4B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기업지원 대표포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원 SK C&C 상무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관이나 부서 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관련 각종 행정업무 및 산업정보에 대한 기업중심의 원스톱 단일 서비스 창구 재편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기업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LG 폴란드 LCD 클러스터, 2010년까지 연 생산량 1000만대로 확대

LG전자가 'LG 폴란드 LCD클러스터'를 통해 유럽 평판TV 시장 공략의 피치를 올린다.

LG전자는 지난 4월 준공한 폴란드 LCD클러스터를 유럽 디스플레이 전진기지로 육성해 LCD TV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유럽 평판TV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9월4일 밝혔다.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Wroclaw)시 코비에르지체(Kobierzyce)에 위치한 'LG 폴란드 LCD 클러스터'는 총 155만㎡(47만평) 규모로 446만㎡(135만평) 규모의 파주와 205만㎡(62만평) 규모의 중국 난징에 이은 LG의 세번째 규모의 LCD 클러스터다.



지난 2005년 9월 폴란드 정부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4억유로(약 5000억원)를 투자했으며, 2011년까지 약 4억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폴란드 LCD클러스터'는 ▲LG전자의 LCD TV 완제품 ▲LG필립스LCD의 LCD모듈 조립라인 ▲LG화학의 편광판 세트 ▲LG이노텍 및 3개 협력회사의 인버터와 파워모듈 등 LCD부품 생산라인 등 LCD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LCD 클러스터에서 LG전자는 풀HD를 지원하는 37 42 47

52 55인치 LCD TV를 올해 연간 240만대에서 2010년에는 10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LG필립스LCD는 대형 TV용 LCD모듈을 올해 300만대에서 2011년에는 110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LCD TV를 유럽 딜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유럽 주요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우정보, GEOSM와 네비텍 지분인수 선박설계 및 유통 사업으로 발 넓혀

대우정보시스템이 전문 솔루션업체 인수를 통해 사업 확대와 신사업 추진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9월4일, 대우정보시스템은 최근 선박설계 및 조선ERP(전사자원관리) 전문업체인 GEOSM과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유통 전문업체인 네비텍의 지분을 인수, 자회사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이번 지분인수로 인해 총 5개 자회사와 1개의 합작법인을 소유하게 됐다.

대우정보시스템의 자회사는 중국 엔타이 현지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최근 인수한 GEOSM은 매출 규모 100억원의 선박설계 및 IT서비스 전문업체로 선박 건조 전 과정의 설계 능력 및 선박 건조를 위한 ERP 기술을 보유하고 토털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비텍은 지난해 1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HW, SW 유통 전문회사로 오랜 기간 GM대우의 유지보수 경험도 갖고 있다.

이외에 지난 5월에는 GM대우 SM(시스템관리)을 위한 DIS-EDS를 EDS와 합작으로 설립하고 중국 엔타이 현지법인을 지난 8월에 설립했다.

대우정보시스템의 전문업체 지분인수는 새로운 사업진출과

기존 사업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우정보시스템의 성장엔진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대우정보시스템은 기존 조선IT 사업 강화와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사업, 유통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10년에는 매출 1조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연내 추가로 지분투자를 통한 전문업체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KT, 메가TV 전국 '확대' ...연내 30만 가입자 목표

KT가 지난 7월 스트리밍 방식의 '메가TV'를 선보인 데 이어, 다운로드&플레이(D&P) 방식을 추가로 내놓고 전국서비스에 나섰다.

KT는 9월5일부터 전국의 모든 메가패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다운로드&플레이 방식의 '메가TV'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맞춰, '새로운 TV 세상'을 모토로 TV 광고를 실시해 기존 TV와는 차원이 다른 TV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더불어, 초고속 인터넷 메가패스와의 결합 상품 출시를 통해 프리미엄 이상 가입자에게는 메가패스는 5%, 메가TV는 10~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T 측은 "D&P 방식의 메가TV는 안정적인 메가패스 회선 기반 하에 제공된다"며 "HD급 고화질 콘텐츠와 차별적인 양방향 서비스가 특징"이라고 밝혔다.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는 HD를 포함한 국내·외 영화, 유아, 애니메이션 등의 서비스와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인기 드라마, 연예오락, 시사교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방향 서비스는 현재 'TV신문과 날씨' 2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노래방, 게임, TV도시락 등 2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 측은 해외 메이저 콘텐츠

공급사와 제휴해 영화, 외화 시리즈 분야의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영희 KT 미디어본부장은 "이번에 출시한 D&P 방식의 메가TV는 지난 7월 출시된 스트리밍 방식의 커버리지 한계를 보완해 전국 모든 메가패스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올해 30만, 내년에는 100만 이상의 고객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 모바일하이패스 '패스온' 출시 월 1000원으로 통행료 충전·교통정보 이용

LG텔레콤은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9월10일부터 모바일 하이패스인 '패스온(PassON)' 서비스를 런칭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달리는 차 안에서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하는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서비스에 블루투스 기능이 지원되는 휴대폰을 연계, 고속도로 통행 시 차량 내에서 무선으로 통행료를 결제 및 충전, 다양한 도로교통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모바일 하이패스 서비스이다.



기존 하이패스 이용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하이패스 차량단말기를 구입 및 이플러스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LG텔레콤의 패스온 고객들은 영업소 방문없이 가까운 LG텔레콤 매장에서 하이패스 차량단말기를 구매하고 휴대폰으로 충전을 해결할 수 있어 하이패스 활성화는 물론 고객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OBU:OnBoard Unit)를 장착한 차량이 톨게이트를 지나면, 요금은 자동으로 하이플러스카드에서 차감되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기다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출퇴근길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3%까지 절약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운전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고속도로/수도권 교통정보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패스온 서비스는 월 1000원으로, LG텔레콤은 패스온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 대해 3개월간 이용요금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SK텔레콤, ‘모바일 신용카드 청구서’ 서비스 개시

SK텔레콤은 LG CNS, LG카드와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 청구서를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신용카드 청구서’ 서비스를 9월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용카드 청구서’는 기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보던 신용카드 청구서를 휴대폰으로 바로 수령하는 서비스로, 신청 고객이 청구일 기준 7일전에 해당월의 카드 청구서를 자동으로 휴대폰에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에 발

생할 수 있는 파손/분실/오배달을 막을 수 있고, 해당월의 청구서뿐만 아니라 이전의 청구서도 보관되므로 카드사용 실적 관리 측면에서 편리하다. 또, 프로그램 실행 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게 되어 있어 안전성이 보장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네이트-> 9. 정보 -> 7.보험/교통칩/신용카드 -> 5.카드사별 서비스 -> 1. 모바일 청구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한 후 심의를 마친 카드사가 전송한 콜백 SMS를 통해 청구서 뷰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청구서 뷰어 다운로드 및 조회 시 별도의 데이터통화료 및 이용료는 없다.

현재 LG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BC카드와 외환카드 등 타 카드로 제휴를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네트웍스, ‘u-Ready’ 출시 보안·경제성 뛰어난 무선네트워크 서비스

삼성네트웍스가 기업의 U-오피스 통신환경을 구현하는 통합 무선네트워크 서비스 ‘u-Ready’를 출시했다.

삼성네트웍스의 u-Ready 서비스는 단순한 무선망 구축뿐만 아니라, 관제·보안·인증·로밍 등 기업이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안심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에는 ▲무선랜 인프라 구성 및 운영관리 ▲암호화 및 인증을 통한 사용자별 접속관리 및 제한 ▲사업장 간 로

밍서비스 ▲비인가 사용자 및 기기 차단 ▲사용자 위치 제공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 사용자 보안관제 ▲국내외 어느 곳에서든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유-레디 서비스는 통합 서비스라는 점 외에도 뛰어난 경제성과 보안성을 갖췄다.

우선 유-레디는 구축형이 아닌 서비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무선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월 사용료만으로 무선통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고가의 구축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하면서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도 필요치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더욱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무선랜 인프라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유해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비인가 사용자/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경우 즉각적인 탐지 및 차단 조치가 수행된다. 이 같은 사실이 관리자에게는 SMS·e메일로 실시간 통보돼 빠른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삼성네트웍스 인프라사업부 전홍균 상무는 “유-레디 서비스는 삼성네트웍스의 대표 상품인 인터넷전화 삼성Wyz070, 영상회의, 보안 등 다양한 솔루션과 결합돼 기업 고객의 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F, 위젯 기능구현 ‘멀티팝업’ 출시 휴대폰 대기화면 내 맘대로 꾸민다

KTF는 날씨, 검색, 증권, 뉴스, 메모장 등 개별 콘텐츠 아이콘인 ‘미니(Mini)’를 휴대폰 대기화면에 다운로드 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신개념 대기화면 서비스 ‘멀티팝업(Multi Pop-up)’을 출시한다고 9월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대기화면 서비스 ‘팝업’에 ‘위젯(Widget) 기능’을 구현했으며, 고객이 대기화면의 아이콘까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멀티팝업’은 ▲하나의 휴대폰 대기화면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 배경화면에 등록된 고객의 사진과 동영상도 바꾸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설정한 대로 개별 콘텐츠에 관련한 최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현재 KTF 고객 중 400만 명(약 30%)이 사용하고 있는 61종의 단말기가 ‘멀티팝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새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 향후 ‘멀티팝업’ 기능은 팝업 단말기 전체(약 100종)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휴대폰 다운로드센터에서 ‘멀티팝업’과 ‘멀티매니저’라는 실행 프로그램 2개를 설치한 후 원하는 개별 ‘미니(Mini)’를 내려 받으면 된다.

실행 프로그램 다운로드시는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모두 무료이며, 개별 ‘미니’는 정보이용료가 무료~1000원, 데이터통화료는 무료 또는 1KB 당 3.5원이다.

KTF CI기획팀 협력 팀장은 “무선 망개방 사업, 대기화면을 통한 광고사업, 대기화면 꾸미기를 위한 캐릭터 업체와의

제휴 등 모바일 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G데이콤, 인천공항 내 인터넷전화 체험코너 운영

LG데이콤이 인천공항 내에 인터넷전화 서비스인 'myLG070' 체험코너를 운영한다.

LG데이콤(www.lgdacom.net 대표 박중응)은 해외여행객들이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LG데이콤 국제전화 안내센터'에 'myLG070 체험코너'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LG데이콤 관계자는 "myLG070 체험코너는 휴가와 추석 연휴 등으로 해외 출국자가 많은 9월말까지 운영된다"며 "해외 출국자들은 무료로 myLG070을 체험해 보고 가입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yLG070은 미국·중국·영국 등 전 세계 주요 20개국에 분당 50원의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간 무료통화 및 전국 단일 통화요금(3분당 38원)을 적용하고 있다.

또, LG데이콤은 'myLG070 체험코너'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형 LCD TV, 디지털카메라, PMP 등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창우 LG데이콤 사업본부장은 "고객들이 myLG070의 통화품질을 직접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이번 체험코너를 운영하게 됐다"며 "체험코너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myLG070의 편리성과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데이콤은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도 myLG070 체험존을 운영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하나TV' 호평... "신성장 채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의 포화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하나로텔레콤이 하나TV를 신성장 엔진으로 채택하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내용을 8월30일자 비즈니스섹션 특기사로 게재했다.

WSJ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춘 한국에서 하나로텔레콤이 비디오 및 영화 콘텐츠를 PC 환경에서 TV로 접속시켜 사업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유선통신 2위 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이 1년 만에 50만 가입자를 유치했고 이 회사의 경영진들은 내년 초 100만 가입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성공요인으로 약 10달러 불과한 요금으로 2만여 편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이 신문은 전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춰진 한국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허거운 반면, IPTV는 법

제화 미비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 때문에 하나로텔레콤도 실시간 방송이 제외된 하나TV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신문은 IPTV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방송보다 '양방향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TV가 양방향성에 주목하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과의 차별화를 꾀해 성공했다고 전했다.

WSJ는 하나TV 가입자들이 평균 한 달에 약 160시간, 이중 35%의 가입자들이 유료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TV시장보다 높은 편으로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분기 매출 8%, 2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200만 달러를 낸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S-LCD, 8세대 LCD라인 양산출하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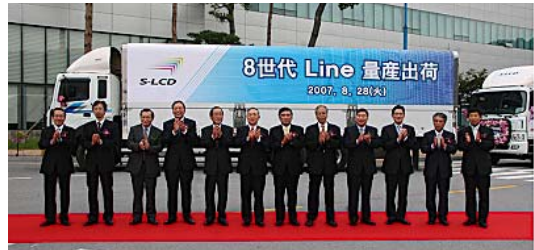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소니가 공동 투자한 S-LCD의 8세대 LCD라인이 양산출하식과 함께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충남 태정 크리스탈밸리에 위치한 S-LCD 8세대 라인인 삼성과 소니가 합작해 1조8000억 원을 투자, 2200×2500mm의 기판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LCD 패널 생산라인이다.

지난 8월28일 출하식에는 윤종용 부회장, 소니 주바치 료지 사장, LCD총괄 이상완 사장, S-LCD 장원기 CEO, 히토미 CFO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S-LCD는 7세대 라인에서 40인치 패널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8세대 라인에서는 52인치와 46인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S-LCD는 7세대 라인을 안정적으로 가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8세대 라인을 통해 올해 안에 월 5만매 생산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52인치 제품기준 월 30만대 생산이 가능한 수치다.

S-LCD 장원기 CEO는 “다른 LCD 경쟁사들보다 생산규모와 시기 면에서 한 발 앞서 50인치 시장을 공략해 주도권을 쥐고 나갈 것”이라며 “S-LCD 7세대에서 성공한 것 이상으로 8세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미 드럼세탁기 시장 첫 1위...진출 4년만에

LG전자 드럼세탁기 '트롬'이 미국 시장 진출 4년 만에 드럼세탁기 시장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지난 2분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8.2%를 기록, 그동안 선두를 유지하던 월풀 '켄모어(Kenmore)'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고 8월22일 밝혔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3%의 점유율을 보였다.

드럼세탁기는 미국 세탁기 시장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CEA(전미가전협회)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Innovation)을 수상했다. 미국 시장조사 기관 'JD파워'는 세탁기 부문 소비자 만족도 1위 브랜드로 선정했다.

LG전자 북미지역 총괄 안명규 사장은 “트롬 성공을 계기로 LG프리미엄 제품 판매,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